

# Art

아트인컬처  
September 2014

Special Feature /  
광주비엔날레 20년  
전시 인물 사건 하이라이트  
이용우 인터뷰

Artist /  
마류밍, 김종구

Memorial /  
은 카와라, 날짜 여행자

New Vision /  
2014 파이널리스트 선정



## ‘동시대성’이라는 스펙트럼

스펙트럼-스펙트럼展 7.24~10.12 삼성미술관 플라토

199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예술계가 재편성되던 시기에 리움은 <아트스펙트럼>을 개최하여 현대미술의 동시대성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기획된 <아트스펙트럼>은 총 48명의 작가를 선정, 국내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술가를 배출했다. 리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플라토 전시 <스펙트럼-스펙트럼>전은 특정 주제를 갖춘 그룹전이 아니라, 일종의 자유로운 대화 같다. 미술관 큐레이터가 총 7명(팀)의 작가를 선정하고, 각 작가는 다른 7명(팀)을 선정했다. 그들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다든가, 서신을 교환하는 자유 형식을 취했다.

일부 젊은 작가를 제외하고 참여작가 대부분은 미드-커리어를 형성하며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들이다. 그들의 작업은 아날로그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 회화적인 속성과 인터미디어적인 속성, 인체(우리의 몸)와 포스트휴먼의 교차점, 리얼한 무엇과 가상의 속성, 예술과 상업의 알팍한 경계, 유희와 노동의 미끄러짐, 그리고 예술작품의 순수 미학적 오브제 속성과 상품 가치, 인습적 젠더와 성적 소수자 등 서로 각기 다른 요소들이 서로 미묘한 특징을 내던지며 서로 얽혀 있다.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닌 이러한 특징들은 이분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묘하게 뒤섞이면서도 서로 부유하고, 절충적면서도 양가적인 속성을 오간다. 마치 니콜라 부리요가 사용하는 용어인 ‘래디칸트(radicant)’처럼 여러 가지로 파고드는 다양한 줄기에 거대한 담론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종의 트위터 글이나 쉽게 사라지는 인터넷 뉴스의 문구처럼 소멸적이면서도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새기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들을 접하게 된다. 인터넷에서 발견하는 정보는 작가의 작품에서 새로운 주제로 재편성, 합성, 재편집되어 새로운 문맥의 언어나 표현으로 탈바꿈한다.

### 범상치 않은 일상의 변주

미술가들에게 일상생활은 범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독특한 공간이다. 김범의 대형(491×348.5cm) 회화 <무제(친숙한 고통 #13)>은 윽키티컬한 미로나 퍼즐 같은 느낌을 준다. 대형 미로 앞에서 길을 찾을 요량으로 관객의 눈이 여기저기로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멀리서 보면 윽키티컬한 추상 회화지만 가까이에서 사람들은 작가의 말대로 일종의 “인지적 회화”로 인식하면서 출구를 찾는다. 점차 작은 스케일의 시리즈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대형으로 이어지고, ‘친숙한 고통’은 삶의 윽조림으로 이어진다. 언뜻 보기에, 김범이 선정한 작가인 길종상가는 김범과 서로 공유하는 지점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예술 현상을 바라보는 다소 시니컬한 태도나 일상 속의 반전과 유머를 불러일으키는 소소한 부분은 묘하게 어울린다. 길종상가는 박길종 김윤하 송대영이 서로 협업한 각종 제품(혹은 작품)을 판매하면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팀이다. 보통 협업이라고 하면, 역할 분담을 하고 각자 잘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경우지만, 길종상가의 <아 귀에 걸면 다르고, 어 코에 걸면 다르다>라는 작품은 한 사람이 만든 이후, 또 다른 사람이 만든 형태를 축적해 가면서 완성한 것이다. 플라토에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상품으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니, 잉여 세대를 자처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업 방식, 노동을 미학적 가치로 표면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흥미롭다.

미나와 Sasa[44]는 작품 <Life Savers 2014>이 ‘Life Savers, 정성, 진, 화살표’로 구성돼 있다고 말한다. 인터넷의 검색 틀인 네이버나 위키피디아는 백과사전식 정보가 부유하는 공간으로, 이들에게는 작업의 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정치인과 연예인이 많이 사용하는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벽을 이용해 서로 분리시켰다. 그리하여 빨간 배경에 흰 글씨 ‘진’과 수백 번 반복되는 ‘정성’을 배치해 언어적 유희를 일으킨다. 반복되는 단어인

위·미나와 Sasa[44] <Life Savers 2014>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4\_작년 한 해 가장 화제가 된 온라인 검색어 ‘진정성’이라는 단어, 구멍 튜브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미국 리글리(Wrigley)사의 사탕 제품 ‘라이프 세이버스(인명구조대)’, 출구를 가리키는 여러 개의 화살표 등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기호가 조합됐다. 아래·이동기 <파워 세일> 캔버스에 아크릴릭 380×840cm 2014\_2008년 <더블 비전> 연작에서 추상과 구상을 결합한 작가는 파편적인 이미지를 조합해 거대한 콜라주 회화를 완성했다.







위 · 홍영인 <우리가  
춤추게 하라> 퍼포먼스  
2014(앞) / 홍영인 <불길의  
사랑> 약 370x290cm  
2014(뒤)\_안무가 오설영과  
협업한 <우리가 춤추게  
하라>는 전시장에서 10대  
소녀들이 강렬한 안무를  
선보이며, <불길의 사랑>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촛불 시위의 한 장면을 자수  
드로잉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아래 · 이주리 <검은 잔영>  
캔버스에 유채 194x259cm  
2014\_작가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즉각적이고 즉흥적으로  
화면을 채워 나간다. 작가의  
경험과 대중문화나 미술사에서  
차용한 요소가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에 녹아 있다.

‘정성’에 비해 모뉴멘털한 ‘진’은 사전적 의미와 달리  
진실하지 못한 ‘새빨간’ 거짓말처럼 역설적으로 보인다.  
이들이 선정한 작가인 슬기와 민은 디자인 듀오다. 그들은  
다섯 점이 하나의 묶음으로 존재하는 세 세트의 포스터를  
디자인하되, 제1세대 미술가들이 이용한 디자인 세팅이나  
서체 등을 이용해서 5회에 걸쳐 진행된 <아트스펙트럼>전의  
포스터를 다시 디자인했다.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계획하여, 마치 아카이브처럼  
전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플라토 로비에 설치된 지니서의 <Rivers>는 총  
134개의 금색 은색 톤을 지닌 가죽 밴드로 구성돼 있다.  
장소특정적 공간의 특징을 이용한 설치의 기동들을 서로  
이어 주면서 오픈된 공간에 심리적 긴장 관계를 구성한다.  
1970년대 비토 아콘치가 해프닝과 퍼포먼스에서 건축 공간  
연구로 관심을 이행하던 시기에 시도했던 설치 장면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지니서의 작업은 마초적인 아콘치의  
작업과 달리, 선적이고 일필휘지적인 서체의 속성을  
보여 준다. 또한 동양 여자의 긴 검은 헤어를 연상시키듯  
강줄기의 선들은 강력하면서도 섬세하고 연약해 보인다.  
지니서가 선정한 홍영인도 미나와 Sasa[44]처럼 인터넷에서  
발견한 단편적인 사진(촛불시위 현장)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좀비나 유령 같다. 그것들은 설 사이 없이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수없이 공유되고, 또 인터넷 유저는  
‘추천’ 버튼을 누르며 공감을 표현한다. 하지만 파도처럼  
한차례 휩쓸고 잠시 머물다 가버린다. 홍영인의 <불길의  
사랑>은 디지털 정보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천에 수를 놓은  
노동력을 통해서 이미지에 영속성을 부여하고 시간성을  
지속시킨다.

### 현실이라는 일루전

오인환은 주변화되고 타자화된 젠더를 중심으로 작업을  
해온 작가다. <경비원과 나>라는 작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에 의해 사회에서 통제 당하는 관계성을 재현한다.  
작가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성적 소수자가 처한  
사회성을 다루기 위해, 특수한 상황을 설정해 이를  
실현했다. ‘폐쇄회로 TV’에서 왈츠를 추는 작가는 본래  
경비원과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관계 맺기’를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함께 춤을 추지 못한 실패한 프로젝트를  
상영한다. 오인환이 선정한 이미지는 한국 근현대의 영성한  
집약성을 폭로하기 위해 근대 조각의 상징인 로댕 조각의  
복제품을 연금술적으로 녹이고 재형상화하는 반복 과정을  
거친다.

포스트휴먼적인 요소를 쟁점적으로 다뤄온  
이형구는 <Measure>라는 영상 작업에서 말을 이용한  
기계 메커니즘과 보조 장치로 아시아 남성이 가진 신체  
복플렉스를 극복한다. 작가는 장치를 직접 사용해  
마장마술 코스를 수행하며, 신체의 확장을 꾀하는  
과학적인 장치들에 의존함으로써 기계화된 인간의  
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형구가 선정한 정지현은  
<종이낙화장치: 전보다 조금 무거워진>과 <저편의 리듬>을  
플라토 로비에 설치했다. 그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중력과 빛에 관심을 두고, 리얼리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곱씹는 작업을 제시한다.  
천장에서 3분마다 떨어지는 종이 카드는 ‘빛과 중력의  
계약을 잊지 않기로’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흑연의 긴  
바(저편의 리듬)에는 지구 먼 곳에서 태어나고 사망하는  
사람 수가 시시각각 바뀌도록 설정돼 있다.

‘아토마우스’로 널리 알려진 이동기의 <파워세일>은  
묘한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유난히 재난이 많았던  
시기에 그는 추상과 구상 이미지를 이용해 기억의  
드라마를 펼치는 것 같다. 대형 캔버스에는 대중매체에서  
빌려온 이미지(광고이미지 등)를 비롯, 북한의 프로파간다  
포스터와 일본의 핵폭발, 길창덕의 만화, 색면으로 구성된  
추상 이미지, 작가의 낙서 등이 묘하게 뒤섞여 있다. 이러한  
거대 드라마 아래에는 작가의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있다. 이동기가 선정한 이주리는 다소 그로테스크하고,  
초현실주의적인 언어에 천착하여 마치 고딕소설을 읽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이 벌어지는  
곳이 꿈도 가상도 아닌, 구체적인 한국의 산업 현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특하면서도 다차원적인 회화론을 정립한  
정수진은 미디어 작가 이정현과 협업해 <인문공학을 위한  
무한논리무늬동력장치>를 제작했다. 이 영상 작업에는  
우리의 전통에서 옛보인 네모, 세모, 동그라미와 같은  
무늬들이 등장하는데, 작가는 이를 미래의 성장 동력을  
소개하는 일종의 광고 영상으로 그려 나간다. 정수진이  
선정한 경현수는 회화의 가장 기본요소인 선, 색을  
이용하여 회화 4점을 선보인다. 그 작품이 배치된 벽에는  
노란 색 수평 띠가 놓여 있다. 노란 줄은 회화의 자율성을  
강조한 추상 회화에 일루전을 제공하고 배경과의 관계성과  
확장을 보여 준다. 7명(팀)의 작가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200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을 밝히는  
단서처럼 느껴진다. 스펙트럼 이면에 숨겨진 빛을 찾는 것은  
독자와 비평가들의 몫일 것이다.

/ 정 연 심